

제79회 기독교교육진흥주간 자료

(2012년)

주제 :

어린이를 교회의 중심에 세우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교회교육 !

진흥주일: 2012. 9. 16.

진흥주간: 2012. 9. 17-23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제79회 기독교교육 진흥 주간 자료 내용 목차

1. 목회서신: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지킵시다.

2. 기독교교육 진흥운동의 역사

3. 예배 자료

모형 I :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1 (전통예배)

모형 II :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2 (열린예배)

모형 III : 성인이 드리는 예배

모형 IV :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4. 설교자료

설교 I :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안준호)

설교 II :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DIY 설교 (박가원)

설교III : 성인이 드리는 예배 (은준관)

설교IV :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5. 진흥주간 프로그램

1) 사랑의 리퀘스트

2) 특별 영상 제작

3) 특별 찬양 만들기

4) 교사 간증

5)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6) 한 마음으로 먹는 시간

7) 한 마음으로 요리하는 시간

8) 한 마음으로 만들어보는 시간

6. 교회학교를 세우는 교육 (박행신)

목회서신: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주님의 은총이 목회자들과 교회들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 합니다.

오는 9월 16일은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교육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흔히 말하듯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미래정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학습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영원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려는 학생이라면 이 학습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어린이들에게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는 행위를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사회화”를 교육의 주요목적의 하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은 다릅니다. 어린이를 사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어린이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어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린이를 불러 세우시고, 온 교회가 바라보게 하신 후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2-3)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혼란한 사회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대안이고,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대안적 교육과정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지도자, 교사, 어른이 적어서 혼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교육과정을 따라서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을 지금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너무 적어서 혼란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은 “은총과 성화의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작은 예수님” 교재 시리즈를 만들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길”을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여러 나라 정부들의 미래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훨씬 강력한 미래정책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정책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가정, 행복한 나라를 위한 완벽한 교육정책입니다.

금년 제 79회 기독교 진흥주일과 이어지는 진흥 주간을 맞이하여, 교회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교육국이 기독교교육 진흥 주간을 위한 몇 가지 특별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들을 감리교 홈페이지와 교육국 홈페이지에 자료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마다 새로운 기독교교육의 중흥이 일어나고, 천국의 시민들이 대거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 내려 받는 곳.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www.kmc.or.kr) 감리교 자료실.

교육국 홈페이지(www.kmcedu.or.kr) 교육 자료실.

임 시 감독회장 김기택 목사
교육국 총무대리 이화식 목사

2. 기독교교육 진흥운동의 역사

기독교교육진흥운동이 시작된 것은 1929년 가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회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주일학교 배가운동의 안건으로 4개년 간 주일학교 진흥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 최초의 시작이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주일학교 교직원의 성경 숙달에 초점을 두고 양성 공과 중에서 성경과를 이수케 했고, 성경통신과를 신설했다. 2년 차에는 주일학교 교직원의 헌신에 초점을 두고 교사 헌신회를 열고 회원마다 1원을 헌금하게 했다. 제3년 차에는 주일학교 교사의 배가양성에 초점을 두고 전국 강습회의 세부조직 활동, 교사양성통신과를 신설했다. 제4년 차에는 주일학교 학생 배가모집운동을 벌여 주교생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매3개월씩 진흥 상황을 보고 하게 했고 지방총무와 대표자가 모여 진흥방침을 세웠다. 이 일을 위해서 신학교와 성경학교의 후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았고 월간지 종교교육을 1930년 1월부터 발간했다.

주일학교 진흥 주일은 9월 셋째주일로 정하고 9월 첫 주일부터 셋째주일까지 3주간을 진흥운동기간으로 정하여 온 교회에 종교교육의 의의와 필요성을 재인식케 하고 출석 장려와 학생모집을 했고 주일학교 교직원의 신앙심과 헌신적 생활을 권장했다.

이런 방향에서 가맹교단별로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그 당시 감리교총리원교육국 주일학교 부에서는 “주일학교는 교회의 기초다. 교회마다 주교를 세우자. 교인마다 학생이 되자”라는 표어를 세우고 진흥운동을 전개했고 1전의 헌금을 의무로 납입하도록 권장했다. 진흥주일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도록 보급했다.

3. 예배 자료

예배 모형 I -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전통예배)

● 목적

본 예배모형의 예시 목적은 기독교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면서 교회의 한 개체로서 소속감과 존중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있다.

● 예배 전 준비

1. 교사와 학생들이 예배실 입구에서 어린이들을 맞이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명찰이나, 화관, 또는 가슴에 꽃을 달아주거나, 배지 등을 준비하여 달아주고, 예배자로 초대된 어린이들은 사진으로 찍는 등, 각종 세레머니 등을 준비한다.
2. 또한 어린이들도 교회의 한명의 성도이며, 개체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자리마다 이름을 붙여 앉도록 하여 예배자로서 교회의 성도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3. 예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기도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도록 하고, 예배 30분전에 모여 맡은 것들을 준비하도록 한다.

● 예배의 형식

본 예배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예배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사회를 비롯한 모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고, 말씀과 헌금기도는 목사와 교육사가 진행하도록 한다.

예배에 필요한 멘트는 미리 준비시키며, 예배 전 교사와 함께 리허설을 통해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한다.

● 주보용 예배 순서

- 예배 순서 -

		* 사 회 :	어린이	
	목	도	-----	다같이
*	찬	송	----- ○○○○ -----	다같이
*	교	독 문	----- ○번 -----	다같이
*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공	동 기도문	-----	교사와 어린이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3:16-17	어린이
	영	상	-----	어린이 영상
	설	교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이	목사/교육사
	향	기 로운 예물	----- ○○○○ -----	다같이
*	헌	금 기 도	-----	목사/교육사
	주	기 도 문	-----	다같이
	광	고	-----	다같이
* 는 일어섭니다.				

● 진행자용 예배 순서

- 예배 전에는 찬양으로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도록 한다. 마지막 찬양이 시작되면 사회자를 비롯한 순서를 맡은 어린이들과 설교자가 기도하고, 줄지어 가운데로 입장하도록 한다.

- 예배 순서 -

목 도 ----- 다같이

사회자 : 조용한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주자의 반주자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 송 ----- 다같이

사회자 :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설교의 주제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한다.)

교 독 문 ----- 다같이
사회자 : 교독문 ○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회자 :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한다.)

공동 기도문 ----- 교사와 어린이

사회자 :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린이 : 주님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사 :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린이 :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교사 :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어린이 : 언제나 말씀 배우기에 부지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사랑하는

교사, 어린이 :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교사 : 어린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 : 선생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교사, 어린이 :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가 교회학교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자 :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성 경 봉 독 ----- 다같이

사회자 : 이 시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 어린이가 나와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 어 린 이 영 상

성경봉독이 끝나면 바로 영상을 상영하도록 한다.
 (준비된 영상은 한 주 동안 어린이들이 찍은 것을 편집한 것이다.
 반별 또는 개인으로 한 주 전에 준비하도록 하여 기대감을 높인다.
 주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기쁨”이다. 어린이들이 기쁨을 얻는 것들을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재밌게 찍어 오도록 한다.
 영상을 통해 즐거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설 교 ----- 목사/교육사

- 영상이 끝나면 바로 설교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한다.
- 말씀은 목사와 교육사가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말씀을 듣는자는 교사와 어린이다.
 즉, 교사를 향한 말씀과 어린이를 향한 말씀을 나누어 선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교 시작에 어린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사를 향한 말씀을 전할
 때 소란스럽지 않도록 부탁한다.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 바로 교육사가 설교를 한다.
 어린이 예배임으로 교사 설교는 5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 설교는 10분정도 진행
 하도록 한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사회자가 나온다.

향기로운 예물 ----- 다같이

사회자 :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 금 기 도 ----- 다같이

사회자 :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기 도 문 ----- 다같이

사회자 :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예배 후 교사나 부장이 나와서 한다.

예배 모형 II -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열린예배)

● 목적

본 예배모형의 예시 목적은 기존 예배의 형태에서 벗어나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만드는 데에 있다.

● 예배 전 준비

1. 교사와 학생들이 예배실 입구에서 어린이들을 맞이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명찰이나, 화관, 또는 가슴에 꽃이나 배지 등을 달아주고, 예배자로 초대된 어린이들을 사진으로 찍고 각종 세레머니를 준비한다.
2. 탁자를 준비하고, 예배 DIY를 미리 세팅해 둔다.
3. 탁자에 미리 예배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을 붙여놓고 어린이들의 분주함을 막는다.

- 예배 순 서 -

* 사 회 : 인도자(교사)

목	도	-----	다같이
찬	송	----- ○○○○ -----	다같이
교	독	문 ----- ○번 -----	다같이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같이
대	표	기 도 -----	어린이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3:16 -----	어린이
설	교	----- 내 맘 가득 예수님! -----	교육사
향	기	로운 예물 ----- ○○○○ -----	다같이
헌	금	기 도 -----	교육사
주	기	도 문 -----	다같이
광	고	-----	다같이

● 예배의 형식

- 기존의 다소 딱딱할 수 있는 형식의 예배순서들은 빼도 좋다. 어린이 DIY예배는 설교자가 요리 또는 과학 활동들을 말씀과 연결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배 모형 Ⅲ - 성인이 드리는 예배

● 목적

본 예배 모형 예시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여 드리는 예배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기억하며 교회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예 배 순 서 (기독교교육진흥주일)

※는 일어서서 합니다.

집례 : 집례자

촛불점화	말은이
※입례찬송 새) 23장/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같이
인사/교회소식	다같이
예배예로외부름	집례자
※경배찬송 새)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같이
※공동의기도	다같이
<p>종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멋진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한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시간들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날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교사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성시교독 새) 교독문 112번	다같이
	교회교육주일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성삼위영광송 새) 2장/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대표기도	교육부장
봉헌찬송 새) 202장/하나님 아버지 주신	다같이
	책은	
말씀봉독 마가복음 10: 14-16	다같이
특별찬양	성가대

영 상 상 영	교 육 부 서
* 예시된 예배 안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말 씀 선 포	어린이, 청소년, 하나님 나라 그루터기	담 임 목 사
※결단찬송/축복기도 새) 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 교육부 관련 사명자들을 위한 축복기도 시간을 갖는다.		
※파 송 의 말 씀	다 같 이
집례자 :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 중 :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집례자 :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회 중 :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보내심 따라 믿음을 살아가겠습니다.		
※축	도	담 임 목 사

예배 모형 IV-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 목적

본 가정예배 예시의 목적은 교회와 가정이 동일한 예배의 장임을 전제로 한다. 교회교육의 확장된 영역으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가정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데 있다.

예 배 순 서

아이스브레이크 ----- 다 함 께----- 인 도 자
찬 양-----오! 이 기쁨-----다 같 이
신앙 고백-----사 도 신 경-----다 같 이
성 경 -----마가복음10장13절-16절-----교 독

인도자와 가족이 번갈아가며 성경 말씀을 읽는다

설교 말씀-----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어린이들-----인 도 자
기 도 -----인 도 자
감사 헌금-----종으신 하나님-----다 같 이
봉투에 ‘가정예배 감사헌금’이라고 쓰도록 자녀에게 가르치고 주일날 헌금시간에 드린다

헌금 기도-----가 족 중
사랑의 하나님, 아빠와 엄마, 동생(누나 혹은 언니)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
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서
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 도문-----다 같 이

예배 후에는 서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서로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000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 예배 후

놀이 활동-----다 같 이

4. 설교 자료

1)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제목: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이

(참포도나무 안준호 목사)

성경: 마태복음 3장 16-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 여러분과 같이 어릴 적에는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른 예수님’ 말고, ‘아이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시고, 또 어떤 신발을 신으시고, 목소리는 어떠셨을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 예수님은 친구들과 무슨 놀이를 하며 노셨고, 놀다 지쳐서 집에 돌아와 주무실 때는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아이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받으시며 성장하셨다는 것이에요.(눅 2:52)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전에 세례자 요한이 있는 강을 찾아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크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크게 기뻐셨나 봐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또 그 뒤에도 어려운 일도 많이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은 단순히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과 기적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이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

리에게 나누어 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세요. 어린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때때로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뽀로통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이야”라고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려 하면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아이야, 너를 사랑해’라고 말한다. 나지막하고 천천히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혹시 오늘 못들은 어린이는 다음에라도 꼭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교회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우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교회학교는 어린이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교회학교에 나와서 선생님들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다 보면, 기적과도 같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이요”라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늘고 있어요. 심지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문제들도 생겨서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학교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가 아주 위대한 일을 하거나 거창한 일을 할 것을 꿈꾸기 보다는 매주 나오는 한 아이 한 아이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도 해먹고, 산과 들로 여행도 함께 떠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교회학교 운동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학교에서까지 지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있는 작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들려주세요. ‘아이야 사랑해’, ‘아이야, 괜찮아’, ‘아이야, 잘해봐’, ‘아이야, 힘을 내’ 널 향한 하나님 마음.

노래 ‘아이야 사랑해’를 틀어주고, 아이들과 ‘세족식’이나 ‘애찬식’을 해도 좋다)

아이야 사랑해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안준호 작사
안준호 작곡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C Em

아 이 야 사 랑 해
아 이 야 사 랑 해
아 이 야 사 랑 해
아 이 야 사 랑 해

Dm G7

널 향 한 하 나 님 마 음
널 향 한 하 나 님 마 음
널 향 한 하 나 님 마 음
널 향 한 하 나 님 마 음

C Gm A7

아 이 야 힘 을 내 려
아 이 야 힘 을 내 려
아 이 야 힘 을 내 려
아 이 야 힘 을 내 려

Dm G7 C

내 가 널 안 아 즐 게
내 가 널 안 아 즐 게
내 가 널 안 아 즐 게
내 가 널 안 아 즐 게

Copyright Notice By A, J, H

2) 어린이가 드리는 예배 - DIY 설교

● 설교 진행

<복음 주먹밥 꼬치>

준비할 것 : 쌀, 참기름, 소금, 카레가루, 시금치, 김, 비트(또는 빨간 파프리카), 꼬치,
개인용 접시, 일회용 봉투(작은 것), 종이컵 작은 것

* 설교자가 요리사 모자나 요리의상, 앞치마 머리 수건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 ① 어린이 수를 고려하여 밥을 미리 준비한다. 주먹밥 다섯 개를 만들만큼을 떼어서 준비한다. 주먹밥 한 개의 크기는 지름 10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호두과자 크기)
- ② 밥은 소금과 참기름, 식초, 설탕을 넣어서 미리 밑간을 해놓는다.
- ③ 황금색 - 카레가루, 검은색 - 김가루, 빨간색 - 비트즙, 초록색 - 시금치(또는 녹차가루)를 작은 종이컵에 세팅을 미리 해둔다.
- ④ 비트즙은 비트를 잘라서 강판에 갈거나 믹서로 갈아서 준비한다.
- ⑤ 시금치즙의 경우는 시금치를 데치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살짝 버무려서 믹서에 가는데, 잎은 물이 많기 때문에 줄기 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⑥ 주먹밥을 만들 때, 먼저 작은 봉투에 밥과 색을 내는 재료 한 가지씩을 함께 넣어 밥에 색이 배이게 섞는다.
- ⑦ 밥을 동그랗게 뭉친 후에 빼어 접시에 놓은 후 색의 순서대로 꼬치에 끼운다.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난감일 수도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변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그 행복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가득 담으면 영원히 우리 마음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행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앞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요?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교육사님을 따라하면 되겠지요? 먼저 요리를 하기 전에 말씀을 읽도록 해요. 이 말씀이 오늘 행복을 찾는 열쇠가 될 거예요. 함께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함께 읽습니다.)

이제 부터는 요리를 하며 말씀을 배워보아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재료들 중에서 노란색을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카레 가루예요. 카레가루는 교육사님이 말한대로 노란색이죠?

노란색 바로 황금색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첫 번째 색깔이에요.

우리 친구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 보았을 거예요. 황금색은 바로 천국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여기 모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예요. 자, 이제 황금색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한번 황금색 주먹밥을 만들어 볼까요? 작은 봉투에 밥을 조금 넣고, 카레 가루를 넣으세요. 그리고 손으로 잘 섞어 동그랗게 만들어 앞에 있는 접시에 노란 주먹밥을 꺼내 놓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요?

(5분정도 친구들을 기다려 주세요.)

다 만들었지요? 그럼 다음 색깔은 바로 검은색이예요. 친구들 앞에 놓인 재료 중에서 검은색을 찾았나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검은 색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기였을 때부터 죄인이예요.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거나, 짜증나는 마음, 친구의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 시간에는 죄를 상징하는 검정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봉투에 밥을 넣고 김 가루를 넣어서 뭉쳐주세요. 그리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노란 주먹밥 옆에 놓으세요.

(5분정도 친구들을 기다려 주세요.)

자, 다음 주먹밥을 만들어 볼까요?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트예요. 이번에는 빨간 비트로 빨간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빨간색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구해내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빨간 주먹밥을 만들어 보아요. 봉투에 밥을 넣고, 비트즙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섞어서 동그랗게 완성해 주세요.

(5분정도 친구들을 기다려 주세요.)

이제는 무슨 색깔을 찾아볼까요? 바로 흰색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까만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흰 눈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받게 되어요. 자, 흰색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봉투에 흰색 밥을 넣고, 동그랗게 만들어 접시에 꺼내 놓아 보세요. 이제 우리의 까맣던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되었어요.

(5분정도 친구들을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 색깔은 바로 초록색이예요. 초록색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무나 새싹일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죄가 하얗게 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자라나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요.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 시간. 마지막 주먹밥을 만들어 보아요. 봉투에 밥을 담고 시금치즙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섞은 다음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5분정도 친구들을 기다려 주세요.)

접시에 다섯 가지 주먹밥이 다 완성된 친구들은 교육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꼬치에 차례대로 끼워주세요.

(5-7분정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고 교사들이 사이사이 돌아다니며 도와주세요.)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요?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색깔들을 함께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누구인지 알겠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에 초청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리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저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성인이 드리는 예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은준관 목사)

주일학교 200년이 되던 1980년, 미국교회학교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을 그 때, “린”(Robert Lynn)과 “라이트”(Elliott Wright) 두 사람은 작은 책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명은 [크고 작은 학교] (The Big Little School)! 이는 주일교회학교를 두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공교육에 견주면 ‘작은 학교’(little)지만, 미국기독교인의 90%가 거쳐 온 ‘큰 학교’ (big school)! 그래서 이 주일교회학교는 미국교회신앙의 자랑스러운 심장이었습니다.

한국교회 120년의 중심에도 이 ‘크고 작은 학교’ (The Big Little School)는 크게 자리잡아 왔습니다. 공교육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학교지만, 일정 시 80%의 기독교인이 거쳐 신앙을 세운 주일학교(교회학교)는 분명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크고 작은 거인이 ‘작고 외소’한 학교 (The Small, Little School)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 없는 교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린이,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그것도 급격한 속도로!

전문가들은 ‘시대적요인’, ‘절대인구의 감소’, ‘프로그램의 낙후성’, ‘교사의 비전문성’, ‘교회의 무관심’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린이교회학교”에서 “학교”를 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학교’를 떼고 나면 “어린이교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닌 “어린이교회”가 놀랍게도 한국교회 미래를 풀어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에 놓인 교회학교를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를 ‘어린이교회’로 전환하는 paradigm shift에서 시작합니다.

“어린이교회”로의 전환!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신학적 전제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를 외치고 나온 존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의 도전이 그것입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미국을 놀라게 했고,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맡겨온 한국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온 데에서 교회학교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지난 날 교회학교가 신앙을 ‘가르쳐 오는 동안’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 (object)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의 ‘삶’과 ‘신앙’의 주체됨을 거부해 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구경하고 모방하는 ‘꼭두각시’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은 삶과 신앙의 주체로서 설 자리기가 없어졌습니다. “군중속의 고독” (The lonely crowd)같은 것이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회학교’로부터 ‘학교’를 떼고 나면 ‘어린이교회’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교회로 가는 길에는 중요한 신학적 전제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학적 인간 이해가 그것입니다.

어린이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하나하나를 ‘학생’ ‘피교육자’ ‘자식’이라는 인간이해를 포기해야 합니다. 어린이교회의 생명은 어린이, 청소년 하나하나를 (그가 잘났든 못났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나라의 소중한 주체’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어린이교회의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어린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나라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하나하나를 하나님나라의 주체로 시작하는 어린이교회는 ‘예배’, ‘교실교육’, ‘선교’라는 공동적인 신앙행위마저 이번에는 교사와 함께 뛰어가는 공동의 예술과 경험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신앙은 ‘형성’ (formation)되는 것이라고 웨스터호프는 우리를 충고합니다.

교회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소중한 교육적 매개이고 또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끌고 가기 전에, 교사가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경청하고 또 응답하는 신앙과 삶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 어린이 없는 교회’는 예상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진흥주간은 twilight zone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 라는 중대한 모험을 결단하는 순간인 듯합니다.

한국기독교교육의 첨단을 걸어 온 한국감리교회가 새 역사창조를 다시 모험하는 창조와 고민의 순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4)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성경말씀: 마가복음10장13절~16절

(인도자와 가족이 번갈아가며 성경 말씀을 읽는다.)

제목: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어린이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어린이들은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 질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 하셨어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00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엄마아빠는 (자녀의 이름을 부른다.) 00가 예수님을 만나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고 왔어요. 꼬마들은 폴짝폴짝 뛰어왔어요. 모두 다 기쁜 얼굴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답니다. “저리들 가거라. 예수님은 무척 바쁘시단다. 너희 같은 시끄러운 꼬마들은 귀찮아하실 거야. 알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셨어요.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애들아, 어서 이리 오너라.” 아이들은 우루루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개구쟁이도, 코흘리개도, 똥똥이도, 수다쟁이도, 모두모두 모여들었지요. 예쁜 아이도, 못생긴 아이도, 예수님은 모두모두 두 팔로 꼭 안아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답니다. 무릎에 앉아도, 목마를 타도, 장난을 쳐도, 예수님은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출처: 두란노 어린이 그림성경-

5. 진흥주간 프로그램

1) 성인이 드리는 예배 - 예배 후 프로그램

* 사랑의 리퀘스트

예배 후 온 성도가 지속적으로 기독교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며, 각 부서와 개인이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배 후 성전 밖에 각 부서별 소개 포스터나 사진 등 각 부서를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을 전시하고 그 밑에 각 부서별 기도제목이 적힌 종이를 배치해 놓는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부서를 찾아가 부서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한켠에 마련된 메모장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다.

성도는 자신이 가져온 기도제목을 기억하며 그 교육 부서를 위해 기도로 후원하고, 각 부서는 자신들의 기도제목을 가져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또한 부서 행사 등 기도가 필요할 시 성도에게 연락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여 각 교육부서가 모든 성도들과 연계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서로 사랑의 후원자가 된다.

2) 성인이 드리는 예배 - 예배 안 프로그램

* 영상 상영

- 각 부서별 홍보영상을 짧게 제작하여 부서별 기독교교육 현황을 알린다. 각부 부장이나 대표의 인사말과 행사, 모임 등을 소개하여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린이들 개인 사진과 이름을 같이 보여주며 온 교인이 함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다.)

* 특별 찬양

- 부서별 특별 찬양을 준비하여 간단히 부서를 소개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 교사 간증

-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교사 한 명이 나와 교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고충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3)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 놀이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크 타임

준비물: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 (문구점에서 구입), 작은 수첩(예배 참석하는 인원 수 만큼)

놀이 진행자: 아빠 (아빠가 출타 시는 연장자가 진행)

진행방법: ① 모든 가족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는다.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②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배꼽에 대고 90°로 인사를 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③ 서로 손을 잡고 손을 좌우로 흔들며 산토끼 노래를 부른다. 1절만 2~3회 반복하여 부른 후에 산토끼 가사받침에 모두 ‘ㅇ’을 붙여서 부른다. ‘상통 깡통깡양 엉텡릉 강능냥 깡총 깡총 똥명성 엉텡릉 강능냥~ 이때 웃으면 안 된다. 웃는 사람에게 모두가 스티커를 얼굴에 붙여준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노래를 불러도 재미있다(붙이는 스티커의 갯수는 상관없다.)

④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짝을 만들어 서로의 눈을 보며 눈싸움을 한다. 이때 진 사람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준다. (몇 차례 반복하여 게임을 한다. 스티커는 팔다리 몸, 머리 등 온 몸에 붙여줘도 된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예배를 드린다.

- 예배 후 준비한 수첩을 나누어 주고 몸에 붙인 스티커를 붙인다. 예배를 드릴 때 마다 스티커를 사용하는 게임을 하고 수첩에 다시 붙여 스티커북을 만들도록 한다. 이 때 어른도 동일하게 참여한다.

- 가정 예배 때 모은 스티커를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로 바꾸어 주거나 기부 활동 등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수 있다.

* 찬 양

다 같이 즐겁게 찬양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거나, 찬양 율동을 함께 해도 좋다.

1절,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2절, 앞 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 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3절,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4절,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해~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출처: Words & Music by Anonymous

* 예배 후 프로그램

1) 한 마음으로 먹는 시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과 근처 가게에 간다. 간단한 간식을 한 가지씩 골라 집으로 오면서 먹는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렸으니 다 같이 가게에 가자. 각자 먹고 싶은 것 한 가지씩 먹는 거야.)

2) 한 마음으로 요리하는 시간

저녁식사 전일 경우 예배 후 가족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해서 먹는다.(가족이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메뉴: 라면 끓이기, 만두 굽기, 과자 만들기(반죽은 미리 준비한다), 밥 비벼 먹기, 김밥 만들기, 주먹밥 만들기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되, 아이들이 직접 요리에 참여 할 수 있는 메뉴로 준비한다.

3) 한 마음으로 만드는 시간

준비물: 우유 곱, 꽃씨(씨앗), 흙, 작은삽, 색종이, 리본, 풀, 가위, 본드, 테이프, 등

폐품인 우유곽을 예쁘게 꾸며 그 안에 흙을 넣고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들어 교회나, 집 정원, 거실이나 아이들 방에 진열해 놓고 사진을 찍어 기념한다.

교회학교를 세우는 교육

- 현대교회 어린이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

이천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

1. 들어가는 말

한국에서 교회교육의 기원은 기독교선교와 동시에 일어났다.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는 의료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 선교였기 때문이다. 의료선교가 갖는 기독교 교육적 의미는 의술전수와 더불어 양반귀족 계급의 타파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평등주의를 심는 것이었고,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이어진 기독교학교의 새 인간교육이 대중의 희망으로 떠오르면서 기독교학교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성경교육과 민족교육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며 문화혁명의 발판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운동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 운동이다. 한국의 주일학교운동은 1888년 스트랜튼 부인이 시작한 단칸방 주일학교나 1890년 소래교회의 사랑방교육에서 시작된 이후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지만, 1909년 정동교회 안에 '유년주일학교'를 설립한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교회의 교회교육은 '주일학교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성장은 교회교육의 표현으로 나타난 '주일학교'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해방과 함께 다소 침체되었던 기독교 교육이 1947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재조직되고, 교제를 출판함으로 회복기에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교육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문제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철학이 없는 교육'에서 '철학이 있는 교육'으로 눈을 뜨기 시작함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각 신학대학에는 기독교교육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서 배출된 교육전문가들이 한반도 구석구석의 교회에서 활약을 하였다. 또한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로 이름과 체제를 바꾸면서 고도의 교사 대학을 통해 교사를 훈련시키고, 다양한 교제를 개발하여 교육에 임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장신대 양금희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인구 감소의 추세보다 개신교의 아동 수는 훨씬 가파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교육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일선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런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이 '이 프로그램에서 저 프로그램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회교육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한다.

2. 교회학교의 수적 정체현상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교회학교는 활성화와 전문화의 시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199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개신교회의 성장둔화가 서서히 시작되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이와 함께 교회학교도 수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 전체 개신교 인구수에 대한 전체 개신교 아동 수의 비율

	1985	1995	2005
전체 개신교 인구 수	6,489,624	8,760,336	8,616,438
전체 개신교 아동 수	890,760	936,614	887,360
비율 %	13.72%	10.69%	10.2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신교 전체 교인 수의 감소에 비해 아동의 감소 추이가 더 가파른 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출산을 감소로 인한 아동 절대인구 자체의 감소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개신교 전체 아동 수의 감소 현상은 동시간대 한국 아동인구수 자체의 추이와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2) 1985년에서 2005년까지 20년간 전국 아동 수와 전국 개신교 아동 수의 증감 추이

	1985	1995	2005
전국 아동 수	4,864,336	3,906,591	4,030,013
전국 개신교 아동 수	890,760	936,614	887,360
증감 추이(%)	18.31%	23.98%	22.02%

위의 표는 전국 아동 수의 정체현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개신교 아동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 1995년에 전국 아동 수는 10년 전인 1985년에 비하여 957,745명이 감소한 3,906,591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아동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1995년 전체 아동 인구수의 23.98%를 차지하는 936,614명이 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5년에는 전국 아동 수가 다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전체 아동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전국 아동 수의 22.02%에 불과한 887,360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비교하여볼 때 개신교 아동 수는 훨씬 가파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 1994년에서 2010년까지 16년간 전국 아동 수와 전국 감리교 아동 수의 증감 추이

	1994	2000	2005	2010
전국 아동 수	3,906,591	3,903,279	4,030,013	3,354,437
전국 감리교 아동 수	264,785	246,939	249,682	202,881
증감 추이(%)	6.77%	6.32%	6.19%	6.04%

위의 표는 감리교회의 교회학교 아동 수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을 말해준다. 2,000년의 전국 아동수보다 2,005년의 아동 수가 126,734명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아동 수는 2,743명이 줄었으며, 이후 2010년까지의 전국 아동 수 대비 감리교 아동 수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감리교 아동수의 감소추세는 만회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후 더욱 가파른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3) 침체의 원인

21세기의 문턱에서 화려한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교육의 현상이 하나같이 중병에 걸려 쓰러져 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양금희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학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교역자, 전문가, 교사의 절대다수가 현재 교회학교가 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양교수는 교역자, 전문가, 교사 집단뿐만 아니라 학부모 집단에도 “한국 교회학교 아동부가 정체 내지 침체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10가지의 예¹⁾를 제시하였는데, 4개의 집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앙적 열정 저하’가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그 외에도 교역자나 학자와 전문가는 ‘목사, 전도사, 교사’ 등 교육과 관련된 인력에서 그 문제점을 찾고 있는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의 방법론이나 주5일 근무제, 입시위주의 시대적 상황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교회학교의 침체원인은 다양한 영역에 기인하고 있다. 교역자와 교사의 전문성 및 사명감 부족, 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도 침체의 원인이 되지만, 교회 자체의 신앙적 열정저하,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적 가치관도 문제의 근원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 교육상황과 인터넷이나 교회학교 대체물들의 등장도 침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학교 침체가 단순히 교회학교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과의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이 떠나가는 뒷모습만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무기력증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건강한 교육패러다임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것일까? 최근 은준관교수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교회(이후 ‘어린이교회’라고 칭한다.) 캠페인이 건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교회학교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교육

교회학교의 복합적 침체 원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학교는 어떤 교육구조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은준관교수는 교회학교의 회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출발점을 존 웨스트호프 3세의 ‘신앙공동체이론’에서 찾는다. 웨스트호프는 1971년 「Values for Tomorrow's Children」라는 책에서 ‘Down with school’, 즉 주일학교의 종말을 선언하였으며, 1976년에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책에서 주일학교죽음의 원인을 폭로하면서,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앙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공동체와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가 주일학교의 죽음을 선포한 시기는 미국주일학교 200주년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부흥의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웨스트호프를 성토하고

1) 침체의 원인에 관한 10가지 질문 ①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의 문제 ②교회학교 교사들의 문제 ③교회학교 부모들의 문제 ④교육방법이나 프로그램의 문제 ⑤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의 문제 ⑥신앙적 열정 저하 ⑦주5일 근무제의 확대에 의한 여가선용 ⑧입시위주의 시대적 상황 ⑨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문제 ⑩기타

나섰지만 그로부터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예언은 현실화되었다. 주일학교가 침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웨스트호프가 지난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주일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제대로 된 교회교육 시스템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동안 교회마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학교식’(Schooling), ‘교수식’(Instructional) 패러다임의 노예가 되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한 결과 ‘신앙형성’도, ‘신앙공동체형성’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은준관 교수는 웨스트호프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의 비판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하나는 그의 ‘신앙공동체론’에는 ‘종말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한계상황에 놓여있기는 하나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독교교육, 더욱이 신앙교육의 산실인 주일학교를 무차별 매도하고, 그 죽음을 선언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교회교육의 회복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나라백성으로 회복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일까? 그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역이시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하나님나라 백성)이 응답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낸 공동체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세상에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을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야 목회와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학교를 살리는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기독교교육 학자들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독교교육 단체들은 교회학교의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위해서 더욱 고도화된 전문성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감소추세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교회학교의 새로운 부흥은 비전제시와 더불어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서 시작된 것이 ‘어린이교회 캠페인’이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학교는 근본적인 변화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통의 밤이 지나면 교회학교의 미래는 희망으로 밝아올 것이다.

1995년 8월 26일 경기도 이천에 세워진 현대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상가 4층의 작은 공간에서 사역하였고, 2010년 12월 25일,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작은 교회이다. 교회설립 초기부터 교회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주일 낮 출석교인 250명, 교회학교 예배인원 200여명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접목하였으며, 교회 안에 건강한 교육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전념하였는데, 이런 시도가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교회교육을 전담할 교육목사가 부임하였고, 이후 교회학교의 교육체제를 어린이교회로 전환하였다. 그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 글에서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생태환경 가운데서 주일 교회학교모임을 중심으로 소개하려한다.

1) 현대교회 어린이교회 캠페인의 신학적 전제

- ① 어린이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신앙, 배움, 행동(섬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 ② 교사는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이와 함께 신앙과 공동체를 세워

가는 산파이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③ 그러므로 모든 교육과정에서 기획, 준비, 진행, 평가에 어린이와 교사가 함께 참여한다.

2) 실천적 구조

- ① 예배를 통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어린이를 세우는 어린이교회
- ② 교실교육을 통하여 ‘세우심’에 참여하는 어린이를 세우는 어린이교회
- ③ 선교와 섬김을 통하여 ‘보내심’에 헌신하는 어린이를 세우는 어린이교회

4. 신학적 전제와 실천적 구조에 근거한 어린이교회 운동

① 예배(leitourgia) : 부르심에 응답하는 구조

어린이교회의 예배는 어린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하는 만남의 예배이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체자로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순서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 기획 단계부터 어린이들을 참여시켜 예배의 의미, 예배의 순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도 참여시켜야 한다. 어린이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배 후 정리정돈까지 훈련하므로 책임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의 성도로 세운다. 놀라운 것은 어린이가 주도하는 예배가 시작된 후 어린이들의 예배분위기와 참여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다. 이런 과정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6개월가량의 교사훈련이 주일 오후와 금요일 밤에 모이는 ‘주일을 준비하는 교사모임’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핵심교사들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예배교육을 받았다.

- 교사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어린이의 의사소통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 기획단계로부터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데, 기획회의는 한 달에 한번 실시한다.
- 어린이가 순서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한 신앙고백이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야 하고, 의미를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예배 진행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직접 경험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교실교육(didache) : 세우심에 참여하는 구조

교실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가르치고 어린이는 배우는 구조로부터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실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교재가 아니다. 교사가 교재에 얽매이면 교실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교실의 다이내믹이다. 이러한 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실교육 준비모임을 가져

야 한다. 이 모임의 목적은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모여서 공과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매주 모이는 것이 좋지만 여건상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을 갖는다. 이때 교사는 공과를 충분히 숙지해 와야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이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이들과의 대화끼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이들에게서 의견이 너무 안 나오면, 교사가 아이들에게 실마리를 던져 주어야 하며, 그 후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그 후 교사는 최종적인 교안을 작성한다. 교육이란,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말씀을 객관적 지식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교육에 참여함으로 신앙이 형성되도록 한다.
- 교실에서의 교육경험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 이를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다음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교실교육 기획회의를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다.
- 이때 어떤 형태의 교육방법을 활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드라마, 그리기, 음악활동, 버즈그룹토의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교사는 교안을 작성한다.
- 이로써 학교식, 교수식 패러다임으로부터 공동체 교실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③ 선교와 봉사(missio & diakonia) : 보내심에 헌신하는 구조

교회가 세상, 나아가서는 창조세계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더 넓은 세상과 만나도록 교육해야 한다. 즉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만나게 하고, 세상과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해야 한다.

- 나약한 교육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아동관으로 전환한다.
- 교회에 머무르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속에서의 치유와 구원에 참여한다.
-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기독교적 인간교육 실시한다.
- 이를 위해서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지역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한다.
- 교회학교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상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육하고, 파송한다.

5. 교육활동의 목표

교회는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환경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선교는 ‘가서 말하는 것(행1:8)’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마5:16)’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신6:4~9, 마28:20a)’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교회학교가 자라도록 돕는 것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이다.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

린이아 청소년을 세우는 노력이 없이 다음 세대의 교회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와 기관,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support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이때 교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기독교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은 life(social) transforming event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변화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변화를 위한 작은 시작이다.

교회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의 한 복판에서 분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어린이를 포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며, 이때 교회 안에는 건강한 교육생태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영원한 기쁨의 축제로서의 하나님 백성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회는 여전히 희망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